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열정을 나누다

1953년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가 탄생한 이래 블랑팡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한 열정을 펼쳐왔다. 12년 전, 블랑팡은 다이빙과 탐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전 세계 바다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인상적인 심해 사진을 소개하는 연간 발행물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Edition Fifty Fathom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블랑팡은 전 세계 해양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대중의 인지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이빙 역사에서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블랑팡은 에디터 디트마 W. 푸크스(Editor Dietmar W. Fuchs)와 협업하고 유수의 포토그래퍼들과 함께 하며 심해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눈다. 그 결과물인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는 매년 선보이는 한정판 발행물이다. 2008년 시작된 발행물로 심해의 다양한 사진들을 담아내고 있다.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로 유명한 흑백 심해 사진의 대가 어니스트 H. 브룩스 II(Ernest H. Brooks II)를 필두로 50명의 포토그래퍼 작품이 여기에 실렸다.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컨셉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다이빙 위치인 아이코닉한 피프티 패덤즈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책은 50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책을 펼치면 각각의 외곽이 1패덤(1 fathom, 대략 6피트)이므로 책 전체로는 50패덤즈 길이가 된다. 또한 이 책에는 50장의 심해 사진이 담겨 있다. 숫자 12 역시 책 컨셉에 있어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계 다이얼 위에 12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12는 시계, 그리고 워치메이킹 자체에서 마법과도 같은 숫자다. 12는 Fifty Fathoms의 철자 수가 되기도 한다.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은 처음 시작한 이래 12년이 지나는 올해 완결될 예정이다.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는 바다를 향한 블랑팡의 진정한 열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70년 전 최초로 모던 다이빙 위치를 만든 우리의 헌신을 담고 있다.”

블랑팡 대표 & CEO 마크 A. 하이예크(Marc A. Hayek)

현재까지 함께 한 포토그래퍼

Ernest H. Brooks II	William Winram	Mikhail Semenov	Anuar Patjane
Maurine Shimlock & Burt Jones	Fred Buyle	Werner Thiele	Yoshi Hirata
Udo Kefrig	Ethan Daniels	Steve Jones	Greg Lecoeur
Helmut Horn	Imran Ahmad	Vincent Truchet	Alex Mustard
Amos Nachoum	Laurent Ballesta	Ellen Cuylaerts	Ace Wu
Doug Perrine	Martin Strmiska	Tony Wu	Henley Spiers
Norbert Probst	Keri Wilk	Uli Kunz	Octavio Aburto
Masa Ushioda	Eric Cheng	Becky Kagan Schott	Dietmar W. Fuchs
Chris Newbert	Michael Aw	Harald Hois	Chuck Davis
Kurt Amsler	Mark Strickland	Tobias Friedrich	Jade Hoksbergen
Reinhard Dirscherl	Marc A. Hayek	Zena Holloway	Jonas Dahm
Stephen Frink	Alan Lo	Christian Vizl	Jorge Cervera Hauser
Aaron Wong			